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170

2010년 8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磻溪隨錄』의 土地改革論과 그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은 혜

『磻溪隨錄』의 土地改革論과 그 영향

Land Reform Ideas of "Bangyesoorok" and its Influence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은 혜

『磻溪隨錄』의 土地改革論과 그 영향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김 은 혜

김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진 규 교수 인

심사위원 김 경 숙 교수 인

심사위원 이 종 범 교수 인

2010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目　次

ABSTRSCT.....i

Ⅰ. 머리말..... 1

Ⅱ.『磻溪隨錄』의 哲學과 土地改革論

1. 磻溪 柳馨遠의 學脈과 實理論..... 7

2.『磻溪隨錄』과 土地改革論..... 12

Ⅲ.『磻溪隨錄』의 영향과 그 의의

1. 17～18세기 초 少論·南人系에 끼친 영향..... 20

2. 18세기 중·후반 洛論系·北學派에 끼친 영향..... 24

3. 磻溪 이후 土地改革의 展開와 發展..... 34

Ⅳ. 맺음말..... 38

Ⅴ. 참고문헌..... 42

ABSTRACT

Land Reform Ideas of "Bangyesoorok" and its Influence

Kim, eunhye
Advisor : :Lee jongbum, Ph.D.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in Chosun Dynasty, there had been lots of changes in terms of the politics, society, economy and ideology. Politically, there were a great deal of difficulties those days as party factions got severer than ever and socially, a status system began to be shaken and economically, the land were devastated. Ideologically, as the contradictions of Sungrihak, the major ideolog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ere appearing, a new idea called Sil Hak came to emerge, emphasizing on practical aspects. Ban-gye Yoo Hyungwon can be regarded as the father of Sil Hak and he thoroughly presents his reform ideas in his book called Bangyesurok.

Basically Yoo Hyungwon's 『Bangyesoorok 』consists of 4 copies of Junje, 2 copies of Gyosunjije, 1 copy of Yimganjije, 2 copies of Jikgwanjije and 1 copy of Nokjije and 2 copies of Byungje, and each copy has its own comment to support the validity of his ideas and is also made of sequels and Goonhyunje, which he died leaving unfinished.

Even though 『Bangyesoorok』 didn't win any recognition from the world while he was living, after his death, it drew people's attention by the recommendation of Yang Deukjoong, Hong Gyehee, and Won Kyungha etc. and finally it was pu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Lee Mi, the Inspector of Gyungsang Province by the order of the King Youngjo in 1771, the 46th year in Youngjo Dynasty.

Among his reform ideas in 『Bangyesoorok』, he put the most importance on Gongjunje and Gonguje and also he thought one's capacity is more essential than his or her social status. In particular, he considered Junje as the most necessary issue because he believed that Jungju of Ju, one of the old countries of China was the best land system. The reason is, as he judged, that Junje would be the key to resolve all the problems of a nation and a society as land was the main element to determine a person's income and wealth in an agricultural society. Therefore, he was convinced that land system would be the

matter of fixing the unfair impose of taxation on land, labor and military service.

Yet he thought of Gongjunje, regarding that Jungjunje, as it is written itself, can not be done on the land of Chosun though he believed that Jungjunje of Ju is the most idealistic system. For the reasons of it, first, geographical features are not flat enough to mark out the land according to Gongjun system, and, second, it is hard to deal with the method of paying taxes as crops produced by 8 families, who share farm and work together, and, third, since it is not a funeralism, some exact measures are needed to gather land and impose taxation on it.

Especially he said ' Jungjun can not be exercised until it is necessarily accredited to feudal lords. so it identified that the political situation of Chosun, not feuderalism, is the main reason making it hard to exercise Jungjunje as it is exactly written.

However, the contents of reform ideas in 『Bangyesoorok』 did not appeal to the country of Chosun, not fitting on the atmosphere of the time and also he had little political power to do that there were not any possibilities to be exercised in reality.

Despite the fact that the reforms in 『Bangyesoorok』 were brilliant and expertly presented the ideology of Sil Hak, they failed to get over facing limitations. Although his reform ideas were not put into practice, it is certain that Yoo Hyungwon was the pioneer of Sil Hak and his reform ideas had a great influence on later times. It is presumed that his reform ideas afterwards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Lee ik and Jung-Yakyong who were the representatives of a middle-class farmer school and they also tried to sort out the matters of the society through land reform with the ideas inspired by Yoo Hyungwon.

Ⅰ. 머리말

17세기 두 차례 전란과 거듭된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국가적 위기 및 민생의 심각한 몰락에 직면하여 조선사회의 학인 및 관료는 시대모순을 타개하는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물론 그러한 흐름은 하나가 아니었다. 기존제도를 그대로 두고 운영개선과 서정쇄신을 추구하는 개량론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군의 학자들은 국가제도의 개혁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의 기본이라고 하는 토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에서 체제 변통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후자의 학문이 실학이며 그러한 일군의 학자를 실학자로 통칭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실학은 근본적 체제개혁을 모색하는 한편 당시 주류학문인 주자성리학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현재 학계는 선구적 실학자가 磻溪 柳馨遠(1622~1673)임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 또한 이러한 실학이 李瀷(1681~1763)을 거쳐 보다 '학파'로 형성되고 丁若鏞(1762~1836)에 의해 집대성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반계는 實學史 및 조선후기 사상사 연구에서 1950년대부터 주목되었으며, 저서 『磻溪隨錄』에 대한 집중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현재 실학의 선구자로서의 반계는 '고대 경전에 담겨 있는 법제의 연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론으로 재구성하였다'는 평가받고 있다.[1)]

해방 후 처음으로 『磻溪隨錄』을 분석한 천관우는 실학이 '學的 체계'를 갖추기는 반계에 이르러서였다고 평가하고 반계의 개혁사상을 토지개혁론에 두고 兵農一致의 軍役制, 봉건적 신분제의 遵用, 조세제도의 개혁, 계획적 국가재정 운용, 상공업의 장려와 화폐유통 강화, 과거제 폐지와 貢擧制 시행, 중앙 행정체계의 효율적 정비, 지방제도의 개혁과 자치성 보장 등으로 정리하

1) 정호훈, 『조선후기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04.

였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통하여 천관우는 『반계수록』의 구상은 尙古主義 왕도정치 사상을 기본 원리로 하는 합리적인 봉건국가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개혁론의 기본이 되는 토지개혁론을 이해함에서 있어서 당시까지 학계의 통설인 토지사유제가 미숙한 상황의 토지국유론 즉 바탕에 깔고 진행하였던 점에서 조선사회를 사적 토지소유가 미성숙한 봉건사회로 규정하였던 한계가 있었다.[2)]

따라서 조선사회 최초의 토지제도개혁론의 반계의 균전론을 양반관료・토호지주 등의 이익과 상반되는 급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봉건사회의 신분제적 토지소유에 대한 '拔本적인 도전'은 아니었다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엄연히 반계는 봉건제 내적 개혁사상가로 위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계가 비록 신분직역에 따른 토지분급 나아가 정치적 階序制에 상응하는 토지분급을 이상적으로 보았다고 하여도 반계의 시대는 이미 토지분급제로서의 과전법이 소멸하고 지주적 토지소유와 농민적 토지소유가 대립 갈등하면서 전자가 우세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반계의 구상이 반봉건적 체제개혁을 지향하였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토지국유론은 당시까지 학계와 일반의 의식을 지배하였던 조선사회정체성론을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개혁론으로서의 실학의 발생과 전개양상 나아가 그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실학을 '反朱子學'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여건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래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즉 실학발생을 서양 및 중국에서의 새로운 문화의 영향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렇듯 1950년대 초반까지 학계는 '내재적 발전론'의 틀로 조선사회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반계사상을 봉건사회를 지양하는 체제개혁론의 관점에서 정리한 최초의 연구자는 金容燮이었다. 1960년대 양안과 호적대장 등의 연구를 통하여 조선후기 사회변동이 봉건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구성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힌 김용섭은 반계의 사상을 봉건사회해체기의 개혁사상가로 평가하였다. 특

2) 천관우, 「磻溪 柳馨遠 硏究(상)・(하)」, 『역사학보』 2・, 1952.

히 이러한 견해를 내재적 발전론의 시각에 입각한 반계의 토지사상 즉 균전론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섭은 반계의 토지개혁론을 근대적인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반계의 토지론은 봉건적인 地主制를 해체시키고 民産을 균등히 할 것을 지향하고 있고, 身分 世襲制를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封建的인 신분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고,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분내적인 균전론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반계의 토지론은 大地主와 大土地所有制를 해체시키면서도, 양반사대부계급에 대해서는 토지분급을 우대하고 있어서, 그들은 토지개혁을 시행한 후의 새로운 제도 하에서 大農經營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반계의 토지론은 工商人에게도 농지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시기에 있어서는 아직 社會的分業 商品貨幣經濟의 발달이 활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개혁론은 상공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자연경제적 경제질서를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타파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3]

이렇듯 김용섭이 신분제의 틀에서 균전제를 운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신분내적 균전론으로 규정하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시대의 변화와 변동에 부응하는 체제개혁론이며, 그러한 사상은 양반토호와 봉건지주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국가운영론 내지는 지배논리와 배치될 수 없었고 이러한 점에서 시대의 진보성을 담보하는 개혁론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혁론이 無土地小土地 영세농을 독립자영소농으로 승격하고자 하였으므로 농민적 토지소유를 지향하는 바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사상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김용섭의 거시적이며 내재적 발전론을 전폭 수용한 金駿錫은 반계의 철학이론 및 시대인식을 치밀하게 정리하였다. 즉 조선후기 체제변통론의 이론 및 사유구조를 살핀 것인데, 반계가 토지개혁론은 국가 사회개혁의 바탕에 두었던 사상적 기초를 變法觀과 實理論을 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주류 지배층의 시대·역사의식 및 성리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3) 金容燮,「朝鮮後期 土地改革論의 推移」,『동방학지』6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9.

반계는 시대에 제약을 받은 유자이며 유교지식인이지만 결과론에서는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즉 "반계는 유교사상의 주요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17세기 당시의 실정과 제도를 감안해서 실행 가능하게 하였다. 반계는 體用論, 修己治人論, 天理人欲說, 그리고 三代의 古制 등에 주목하여 개혁의 기본 이념으로 원용한 것이었다." 반계의 사유와 표현이 유학개념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사상체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때 반계의 핵심적인 성리설이 實理論이었다. "반계는 종래 주자학의 理氣人性論에 대신하는 새로운 인식논리를 수립하게 되는데, 실증·비판의 학문태도를 통한 자기변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도 나아가서는 당시의 정통주자학에서 제기하는 保守·改良的인 更張·變通論理에 대항하여 改革·變法路線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그것은 현식과 이론의 일치를 철학적으로 整合하는 일로서, 세계·물질의 始原과 人倫·道德의 원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포괄하는 개념의 모색이었다. 특히 정통주자학에서는 인간 존재의 當爲를 인륜·도덕에서 구하고 이를 이기인성론에 귀결시키는데 대해서 반계는 實事·實用을 그러한 인륜·도덕에 대치시키고 있었으므로 그 설명방법 역시 새롭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성립된 것이 實理論이었다."

이러한 실리론이야말로 반계의 개혁사상에서 토지론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즉 靜인 理가 '實'을 낳고, 이것이 動인 氣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主靜制動'의 원리를 제시한 실리론의 연장선에서 반계는 '以人爲本'의 改良·改善論을 극복하고 '以地爲本'의 變法·改革論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4)]

최근 최윤오는 반계의 토지론을 '균전제'로 파악하는 연구성과에 반론을 제시하였다. 즉 均田制를 통렬히 비판하고 그러한 논지 위에서 井田法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公田制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반계는 『隨錄』의 첫머리에서 정전법의 지극한 이치를 강조하는데, 정전법에 의해

4) 金駿錫, 「柳馨遠의 變法觀과 實理論」, 『동방학지』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2.

경계가 바로 서면 만사가 해결되고 民은 恒業을 갖게 되고 兵을 수관하는 폐단도 없어지며, 귀천과 상하 모두 본분에 맞게 '覺得'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분수가 절로 정해지면서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반계는 정전제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공전제를 주장하고, 공전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結付法을 고쳐서 頃畝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계의 토지론에 대한 최윤오의 견해는 김용섭의 균전제에 대한 체제개혁론으로의 인식에 반대한 것 같지만 실상은 김용섭의 시각을 한층 보강하는 것이었다. 즉 반계의 핵심은 토지소유의 사유제도 자체를 전국토의 公田化 즉 토지국유화로서 토지소유의 사유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균전제를 비판하고 정전법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때 반계는 보다 근본적이며 전면적인 체제개혁론을 제창한 셈이 된다. 이러한 최윤오의 문제의식은 17세기 조선사회는 토지사유제야 말로 사회모순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이때 사유제를 전제하는 균전제로는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반계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국유제로의 전면 개편과 정전법의 시행만이 이상적 선택이며 이때 균부균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윤오에게 있어서 반계토지론은 결코 신분내적 균전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시적 변통론이었던 것이다.[5)]

이렇듯 지금까지 주요한 연구업적을 통하여 볼 때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토지개혁론이야말로 반계 개혁론의 기본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론이 성호를 거쳐 다산에 이르러 확대 발전하였고, 여기에서 조선사회 체제개혁론의 특징 및 시대적 성격을 찾았다. 그리고 김준석은 실리론으로서 그러한 토지개혁론의 철학적 입론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한결같이 주장하듯이 반계의 토지개혁론이 이익과 정약용으로 계승되는 것이지만, 비단 당론과 사승관계로 규명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는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즉 반

5) 최윤오, 「반계 유형원의 정전법과 공전제」, 『역사와 현실』42, 한국역사연구회, 2001.

계를 조선후기 체제변통론의 선구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야남인 계통의 실학파로 범주화할 뿐 '부안 우반동의 외로운 학인'의 이미지는 극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반계수록이 당대를 넘어 후대에 어떻게 소통 전개 확산되었는가는 여전히 추가할 부분이다. 그런데 반계의 저술은 비단 재야남인에게만 읽혔던 것도 아니고 이들에 의하여 간행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당시 정치·학술계와 반계의 관계 나아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는 이 글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선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반계 사상의 핵심인 토지개혁론 및 사유체계를 살피고 3장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에 흩어져 있는 반계수록의 영향을 당대의 남인 및 소론계, 노론 낙론계와 북학파 그리고 실학파의 주류인 이익과 정약용으로 나누어 살피면서 반계의 영향이 당론과 조야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Ⅱ. 『磻溪隨錄』의 哲學과 土地改革論

1. 磻溪 柳馨遠의 學脈과 實理論

磻溪 柳馨遠의 字는 德夫이며, 本貫은 文化이다. 반계의 집안은 세종 때의 명재상인 柳寬(1346~1433)이래 대대로 관료를 배출한 명문이었는데, 그가 태어날 당시에는 북인과 남인계 인사들이 많았다. 부친 柳欽(1596~1623)은 21세에 과거에 급제한 재서였고, 모친은 우참찬을 지낸 이지완(1575～1617)의 따님이었다. 그러나 반계가 태어난 바로 이듬해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유흠은 '柳夢寅의 옥사'에 연루되어 28세에 옥사했다.[6)]

어린 시절 반계를 가르친 이들은 외삼촌 李元鎭(1594～?)과 고모부 金世濂(1593～1646)이었다. 이원진은 李瀷의 종백부로서 감사까지 지냈고, '하멜'이 표류하던 당시에 제주 목사로 재임하고 있었으므로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밝은 편이었으나 그 자신의 사상은 성리학에 집념하고 있었다. 김세렴은 문과에 장원급제한 수재로서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고, 청나라와도 국교에 밝은 편이었으나, 그 역시 전통적인 유학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 두 스승은 반계에게 사대부로서의 교양을 길러 주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며, 반계가 가묘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성리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터득한 것이니, 이는 두 스승이 훈도한 소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

일찍이 이익은 '先生之學 源於太湖'라 하여 반계가 이원진과 김세렴에게 수학하였음을 강조하였지만 뒷날의 經世觀·變法思想과 관련해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반계에게는 내세울만한 사승

---

6) 유몽인은 광해군 말년에 정치에 염증을 느껴 은거했었으나 인조반정이 일아난 후에 광해군의 복위를 꾀했다는 고변에 위말려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당시 지은 <孀婦歎>은 불사이군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유명하다.

7) 이경구,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역사, 2009, pp.160～161.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그 스스로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吾少時 不得賢師 枉費工夫 年來讀書 漸知其味"라고 자신의 학문이 獨學自成한 것임을 말했고 또 子弟들에게도 비록 名門의 師에게서 受業傳道하지 못해도 道가 내 몸에 있고 聖賢 經傳에 갖추어져 있으니 진실로 스스로 구하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 없었음을 확인시키고 있었다.[8)]

이러한 반계의 학문자세는 師門說을 傳授하기보다는 自家說의 新創에 있다고 믿는 許穆(1595～1682)의 그것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사실 허목은 반계가 사생의 예로써 종유했던 유일한 선배였다고 생각된다.

반계와 허목의 만남은 鄭東稷의 주선에 따른 것이었는데, 정동직은 반계가 그의 형 東益·裵尙瑜(1610～1686)와 함께 道義相許하는 지기의 한 사람으로 理氣·人心道心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론한 사이이기도 하였다. 또 그는 허목이 가장 믿고 기대하는 후진이기도 하였으나 불행히도 젊은 나이로 병사하였다. 그는 죽기 직전에 허목에게 반계를 간곡하게 소개하였다. 허목은 반계에게 편지를 보내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만남은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그들은 생애 두 차례 상면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講論道理 商確古今'하는 진지한 토론은 수일씩이나 계속되었고, 그들은 현실인식태도나 학문방법에서 크게 공감했던 것이다.[9)]

許穆과 柳馨遠, 여기에 尹鑴(1617～1680)까지 합하여 소북계 근기남인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학문적 연원에는 徐敬德(1489～1546)과 曹植(1501～1572)의 학맥을 계승한 북인의 학문적 흐름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0)] 반계의 학문에 북인 학풍의 흐름이 있었음을 일정 부분 확인되는데 이는 부친인 유흠이 '유몽인의 옥사'에 연루되어 사망하였던 점, 이는 유흠과 유몽인(1559～1623)이 일정한 교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

8) 김준석,「柳馨遠의 變法觀과 實理論」,『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2.
9) 김준석, 1992, 위의 논문
10) 신병주,「17세기 중, 후반 근기 남인 학자의 학풍-허목, 윤휴, 반계를 중심으로」,『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유몽인은 크게 북인에 속하였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계의 학문연원에 대해서는 栗谷 李珥(1536～1584)의 학풍을 계승하여 실학의 비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계의 실학풍이 李滉學派의 성리학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1] 그러나 반계의 학풍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학통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반계의 학풍형성에는 16세기의 대표적 학파인 李滉學派, 李珥學派, 曹植學派, 徐敬德學派의 학풍이 다양하게 흡수되었다는 점과 김세렴과 같은 인조 대 실무관료 학자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접목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

磻溪는 자신의 이기론과 관련하여 "天地 간에 가득 찬 것에 氣 아닌 것이 없다. 往來·升降·闔闢·聚散하는 것은 모두 氣이고, 다만 왕래·승강·합벽·취산의 所以가 理일 따름이다. …氣 외에 理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여, '唯氣論'이라고 할 만큼 氣哲學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가게 되면 "理와 氣가 渾融無間하여, 비록 氣외에 理가 따로 있을 수 없겠지만 理가 氣로 인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上天之載', '無聲無臭'하면서도 그것은 至眞至實한 것으로, 그 本體로 말하면 道, 그 眞實함으로 말하면 誠, 그 總會의 면에서 말하면 太極, 그 條理로 말하면 理라 하는데, 기실은 모두가 하나이다. 이 理가 昭著하여 上下를 관철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본적으로 '理'의 독자적 존재성을 인정하며 이를 '實理'라고 부르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의 理氣論이 함축하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는 "氣외에 理가 따로 없다[氣外無理]"라는 입장을 초기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견지하였던바, 이는 곧 그가 자신의 이기론적 입장의 본령을 '氣先理後'론과 '理氣不相離'론에 두었다는 뜻이며, 따라서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 본질적·논리적·관념적인 측면과 태도보다는 현상적·실제적·현실적인 측면과 태도

11) 이우성, 「초기실학과 성리학의 관계-반계 반계의 경우」, 『동방학지』5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12) 신병주, 1997, 위의 논문.

를 항상 중시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理는 다만 氣의 理일 뿐이다.[理只是氣之理]”라는 그의 말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그가 후기에 와서 ‘理’라는 범주의 自在性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를 ‘實理’라고 명명함으로써, 초기의 ‘唯氣論’의 입장에서 ‘理氣理元論’의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 ‘理先氣後’론과 ‘理氣不相雜’론으로의 전회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다만 자신의 본래적 입장을 보다 정교화·세련화시킬 이론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이론적 필요성이란 그가 후기에 理=道의 등식[‘氣=器’라는 등식을 동시에 함축한다]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던 사실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바, 곧 “時有治亂, 道無古今”이라는 만년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자신의 변법적 경세론을 고금을 초원한 어떤 근본원리에 정초시키고자 했던 관심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그의 근본원리란 三代의 古制·古法에 관철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古人의 道’였다.

한편 반계는 心性論에 있어서도 ‘氣先理後’론과 ‘理氣不相離’론을 본령으로 하여 “道心은 다만 人心 상에서 발현하는 것”이고, “四端은 다만 七情 가운데서 발현하는 것”이며. “人心과 道心은 모두가 已發이다.”라고 주장하였던 바, 이를 통해서도 그가 주자학의 심성론 체계를 일정 정도 상대화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독자적 견해를 모색해 나갔음을 간취할 수 있겠다.[13]

반계의 理氣觀은 『반계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크게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정동직과의 班論을 통해서 정리되어진다. 처음에는 主氣論의 입장에서 ‘實事’의 본질을 추구하다가 마침내는 ‘實理論’을 성립시키게 되는 것이다.

반계가 말하는 理는 단순히 氣에 대응하는 理가 아니라 ‘實理’였다. 이때의 實理의 實은 “此理甚實”·“若非至實 無以爲理”하는 實이었다. 이를테면, “대개 理와 氣는 運融하여 간격이 없다. 비록 氣를 떠나서는 理가 없으나 그

13) 정일균, 「조선후기 유교사상계의 동향: 주자학과 그 대항담론」, 『다산과 현대』2,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

러나 理가 機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저 높은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지만 그 진실함을 誠이라 하고 그 總合을 太極이라 하고 그 條理를 理라 하니 그 實相은 하나이다." 라는 것이다.[14]

반계는 종래 理와 氣의 分介에 의해 思班·推論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물의 이해방식을 지양하고 實事의 현상과 본질을 實理라는 차원에서 관찰·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물현상을 관념 사변의 세계로부터 현실 경험의 세계로 이끌어 내온 것이었다. 理와 氣의 통일에서 성립하는 반계 實理論이 주목되어야할 이유가 있었다.

반계의 '實理論'이 내포하는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實理의 理와 관련해서 道와 誠을 통일적으로 이해하였다. 종래의 論者들은 道를 本體로, 理를 그 條理의 理로 상정하여 理와 氣의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道와 理의 관계를 分解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논쟁이 분분해졌다는, 말하자면 후대에 오면서 理氣관계의 지나친 分析이 道와 理의 일치관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게 된다. 반계는 '誠則動'이라 했고, 이것은 識者·儒者에게 君子로서의 道理를 깨닫고 實踐窮行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道와 實理와 誠으로 이어지는 인식과 실천의 통일이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理氣문제에 대한 종래 儒者들의 번쇄한 추론·사변의 태도에 반대하였다. '理固是實理', '理則道', '誠則動' 등으로 집약되는 논리과정을 통해서 현실·實事·實踐의 원리로서 實理를 상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理는 道와 일치하는 것인데도 理를 理氣의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반계는 분명히 실리론의 입장에서 섬으로써 理氣의 對擧·先後·分合 관계에 몰입해버린 공부 방법을 지양할 수 있었다. 종래 正統朱子學의 理氣 이해방식으로부터의 탈피였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하나의 학풍을 형성하면서 그후 실학자들에게 당연히 계승될 것이었다.

셋째, 실리론에 입각한 人性觀을 발전시킴으로써 '性卽理說'을 극복한 관념 속의 도덕 · 윤리적인 인간 대신에 살아있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긍정

14) 柳馨遠, 『磻溪雜藁』, p.73

하고 이를 통해서 이상과 현실, 규범과 정서의 조화를 모색하는 人間像을 설정하게 되었다. 즉, 性·心·情이 각기 별개의 것이 아니며 道心·四端은 각각 人心·七情을 매개로 해서 표출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天理와 人欲도 '同行異情'이라는 관점을 세움으로써 人性의 일원적 설명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로써 객관도덕규범으로 형상화한 관념적인 인간상 대신에, 살아 숨 쉬며 욕망·감정을 가진 인간, 주관적으로 규범과 정서가 조화된 인간을 설정하게 되었다.

결국 주자학의 格物致知가 인간과 사물을 규범적 가치, 法制=道理로서 설명하기 위한 사변·관념의 방법이었음에 대해서 반계는 實事=현상세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여 이를 실용에 적용하려는 '實事求是'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마침내 理氣二元論을 극복하여 理一元의 實理論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실리론은 理氣論과 經世論을 이론과 실천의 관계, 사물과 법칙의 관계로 매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主靜制動'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以人爲本'의 改良改善論을 극복하고 '以地爲本'의 變法 改革論의 철학적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15]

2. 『磻溪隨錄』과 土地改革論

반계는 16세기 이후 혼란스러운 조선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개혁안을 담은 『磻溪隨錄』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구상은 가상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조선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그 모델로 중국의 三代라는 역사시기로 이미 존재했던 사회였다.[16] 『반계수록』을 쓰기 시작한 시기는 31세(1652년, 효종 3)때이다. 이듬해 부안 우반동으로 이사하고 이곳에서 18년간에 걸쳐 『반계수록』을 저술하여 49세(1670년 현종 11)에 완성하였다.

반계가 살았던 시기는 明·淸 교체기의 국제 질서와 대내적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문제가 매우 긴박하게 제기되었던 때이며 壬辰倭亂과 두 차례의 胡亂으로 국가의 대외적 방위 능력의 허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토지를 둘러싼

15) 김준석, 1992, 위의 논문.
16) 고대 중국의 夏, 尙, 周를 의미한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시기였다. 동시에 국가의 조세와 재정체계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대동법 실시가 나타내듯 중요한 사회변동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선생은 이처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청되던 시기에 국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구상은 三代의 王道政治에 근거했다.[17]

그는 三代의 王道政治는 三代의 典章制度를 통해서 구현 되었다고 보고, 三代의 典章制度를 회복한다면 오늘날에도 三代之治는 되살여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三代의 典制의 상세한 내용은 인멸되어 알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선 그 典章 制度 節目을 되살려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반계는 이를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이상사회의 전형을 三代의 王政에 두고, 그것을 法과 制度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태도는 새로운 학문 방법론, 새로운 정치론의 출현을 의미했다.[18]

결국 반계는 삼대 제도를 보편타당성을 갖는 王道, 古道로서 현실에서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막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에 들어가면 역사성을 갖는 제도로서 취급하고, 현실과의 거리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이다.[19]

『반계수록』의 구성방식을 보면 먼저 각 제도 별로 자신의 구상을 제시하고, 다음에 그 제도의 삼대 이후의 변천을 고찰하는데 구상을 제시하는 부분은 원칙과 시행 節目의 제시, 이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졌다. 구상의 제시만이 아니라 이를 해설하는 부분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원칙이나 시행절목에 대해서 '或曰'의 형태로 다른 사람이 해볼 만한, 아니 이미 자신이 스스로 해보았음직한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자신이 답함으로써, 자신의 구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타당성을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 재정, 조세, 관직, 군사 등과 관련한 통계를 확보하여, 자신의 구상에 맞추어 구성원

17) 김선경,「磻溪 柳馨遠의 理想國家 기획론」,『韓國史學報』제 9호 , 고려사학회, 2000.
18) 김태영,「조선 성리학과 실학의 분기」,『실학의 국가 개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9) 반계가『磻溪隨錄』에 수록된 제도 절목을 구상할 때 현실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동안 단편적으로는 지적되었지만 이점을 강조하여 의미 부여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과 토지의 배치, 조세 수취와 재정 규모의 상당관계, 군사 수효 등을 어림셈 해봄으로써, 구상의 실현가능성, 구상 상호간의 정합성을 논증했다.

구상을 제시한 다음에는 편을 달리하여 '攷說'이라는 편명으로, 관련 제도의 삼대 이후 변천을 추구하면서 그에 관련된 論說을 많이 소개했다.[20] 고설을 덧붙인 이유는 아마도 삼대를 통해서는 자신의 구상의 원형을 추구하고, 삼대 이후를 통해서는 후세의 제도가 사욕과 인습에 의하여 삼대 제도의 본지를 잃어 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밝혀서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해명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는 현재와 역사 속의 여러 제도를 거슬러 올라가 삼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구상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계수록』의 첫 번째 장은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제도사에 대한 경세학 연구에 기초해볼 때 토지제도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토지는 농업이 지배적 생산방식인 사회에서는 수입과 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였으며, 토지제도는 토지의 부당한 분배뿐만 아니라 전세·요역·군역의 불공평한 부담도 교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21]

반계가 주장하는 田制改革의 기본원리는 公田制로서의 土地均分이다. 朝鮮王朝의 土地制度는 토지의 國有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私有를 인정함으로써 대부분의 토지는 王族과 양반층의 大土地兼倂 속에 들어가고 일반 농민은 그러한 대지주의 소작인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토지 겸병을 혁파하고 사대부, 농민, 그리고 자립이 불가능한 상공인에게도 토지를 분배한다. 즉 일반 농민의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1頃 (40마지기)의 토지를 균분하고 사와 관리에게는 2～12경의 토지를 급여한다. 받은 자가 죽으면 그가 받은 토지를 국가에 반납케 하여 다른 사

---

20) 김선경, "'攷說'은 별도의 독자적인 하나의 작업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으며, 반계가 여러 가지 글들을 읽고 자신의 구상을 다듬었던, 자신의 학문 과정을 드러내놓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1) 제임스 B.팔레,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김범 역, 산처럼, 1996, p.399.

람에게 다시 급여함으로써 대체로 균등한 토지소유제도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公田制를 실시하고 稅와 役의 부담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토지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稅는 관청에 급여한 免稅田과 王族에게 급여하는 賜稅田 이외에는 모든 토지에서 1/20稅率로 정하고 그 이외의 稅는 일체 국민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役은 士大夫와 胥吏 등에게는 兵役의 부담을 면제한다. 이처럼 토지에 대하여 稅와 役의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당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田稅보다 戶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貢物의 稅가 훨씬 무거워져 토지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던 稅制를 개혁함과 人丁에 대하여 부과되던 役을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함은 국가의 면으로 보면 유동적인 사람이나 戶의 稅源에서 토지라는 고정적 稅源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다.[22]

반계는『반계수록』의 첫머리를 井田制의 찬미로 시작했다.[23]

古代의 井田制는 지극히 완벽하게 경계가 한번 올바르게 되자 만사가 원활해져 백성들은 안정된 항업을 갖게 됐고 군사들은 수탈을 당하지 않게 되어 귀천과 상하가 모두 그 직분을 갖게 됐다. 인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돈후해져 수백수천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되면서 예악을 융성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근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4]

그는 정전제가 그 이후의 어떤 제도보다 우월한 까닭 중의 하나는 고정된 정방형의 토지가 시간과 변화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토지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놓는 이랑과 제방 같은 형태로 구분됐다는 측면이라고 믿었

---

22) 정구복,「磻溪 柳馨遠」,『實學의 古典』4, 창작과 비평사, 1968.

23) 周代의 土地制度로 국가는 諸侯가 관리하는 농지를 9백 묘의 정방형으로 나누고, 각 구역은 다시 각 1백묘로 구획된 9개의 정방형으로 분할했다. 8개의 농민가호는 그 9개의 구역에서 하나씩 소유해 직접 경작했다. 중앙에 위치한 아홉 번째 구역은 공전이라고 불렸는데, 주위의 여덟 가호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며 거기서 나온 생산물은 그 지역의 제후에게 보냈다, 농민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를 내지 않았지만 제후의 토지를 경작해 곡식을 바칠 의무를 가졌다.

24) 柳馨遠,「田制 上」,『磻溪隨錄』,“古井田法至矣 經界一正而萬事畢 擧民有恒業之固 兵無搜括之弊 貴賤上下 無不各得其職 是以人心底定 風俗敦厚 古之所以鞏固維持數百千年禮樂興行者 以有此根基故也”

다. 이런 토지 구획을 따르지 않는 다면 어떠한 田制改革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형에 영원히 각인된 고정된 정방형의 구획은 복잡한 개인 간의 거래 때문에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토지 사유의 심각한 혼란과는 상반되는 안정과 안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반계는 판단했다. 토지를 사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유는 탐욕스러운 부자와 권력자들이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으며 빈자와 부자, 지주와 소작인, 대지주와 소규모의 경작자 사이의 심각한 격차를 만들었다. 반계와 그가 따르는 중국의 선현들도 고정된 구획의 이상을 숭배했는데, 그것은 행정의 단순함과 편리함을 높여 조작과 부정을 막고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통제를 막지 않는 제도였기 때문이었다.

반계는 토지가 부당하게 분배된 주요 원인은 私有財産制度라고 명쾌하게 결론 내렸다. 그는 이전 중국에서 나온 사유재산에 관련된 비판에 근거해 자신의 주장을 대부분 전개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 주장은 가장 완벽한 토지 소유제도는 모든 농가들이 최소의 세금을 내면서 공평한 경작지를 보장받았던 주대의 정전제라는 것이었다. 그 세금은 국왕의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해서 납부했다. 주의 봉건제도에서는 사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사용하거나 경작할 권리만을 가졌다.[25]

반계는 사유재산제도가 소작농에게 과도한 지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려던 한 대 황제들의 좋은 의도를 뒤엎었다는 後漢代 荀悅(148～209)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荀悅은 토지소유권이 “그 땅을 독점하는 것”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춘추시대의 봉건 제후들은 영지를 받았지만 영지에 대한 독점권을 받지 못했으며, 관원들도 비슷하게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했다. 즉 봉건 제후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팔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한대의 지주들은 왕자와 후작보다 많은 수백～수천 경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매매제도와 전한대에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25) 제임스 B 팔레, 위의 책, pp.339-400

반계는 杜佑(735～812)도 한 대의 황제들은 은닉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경작지를 계속 감독하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서리에게 정확한 조사와 측량을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했다. 진의 申不海와 商鞅은 가혹한 처벌을 동원했지만 이런 어려움을 개선할 수 없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대 이후 억제됐던 사유의 존재와 토지에 대한 지주의 독점권에 있기 때문이었다.

宋의 林勳(1127～1130년 활동)이 추진했던 사전 소유의 최대 규모를 제한하는 복잡한 계획을 논의하면서 반계는 朱熹와 呂祖謙(1137～1181)도 임훈의 계획을 칭찬했지만 토지의 일시적인 매매를 허락했기 때문에 역시 정전제의 선례와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반계는 또한 고려 후기의 전제개혁을 주도한 조준과 이행이 고려 전기의 전시과제도는 공전을 사유로 돌린 결과 훼손됐다고 말한 기록을 언급하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반계는 전시과를 토지의 국유에 기초한 당의 균전제를 본받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요컨대 반계는 周代 이후 역사가 쇠퇴한 주요 원인은 사적 소유권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적 결론으로 요약했다. “후세에는 田制가 무너져 사적 소유에 제한이 없게 되니 만사에 폐단이 생기게 되어 주대와는 모두 반대가 됐다.”라고 하였다.[26]

반계는 사유재산을 혁파하고 공적 소유의 맥락에서 토지 소유와 분배를 실시하지 않으면 정전제의 원리를 자신의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공전제를 방어하면서 사전의 약점과 대비시키는데 익명의 논쟁자와 대화하는 형식을 빌리게 된다. 그는 반계의 책 전체에 걸쳐 반계의 제안을 트집잡고 반계의 주장을 정교하게 만드는 장식으로 기능하면서 반계를 따라다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27] 반계는 자신의 공전제의 세부 사항을 개관하면서 그것이 농민의 수입을 평등하고 적절하게 보장하고, 사대부에게 충분한 경제적 후원을 제공하며, 국부와 국력을 증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26) 제임스 B 팔레, 위의 책, pp.401-402
27) 제임스 B. 팔레 위의 책, p.445

주장했다.

반면 사유재산은 인구의 10%가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한 반면 80~90%의 인구는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파악했다. 사유재산의 폐지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 관건이었다. 공전제도는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의 생산과 부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반계의 토지개혁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여 각자의 신분에 맞게 토지를 균등 분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즉 주나라의 정전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복원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공전제를 통하여 실시하게 되면 귀천과 상하 모두 '各得其職'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가운데 分數가 절로 정해지면서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정해질 수 있게 된다는 분수론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서는 結負法을 고쳐 頃畝法을 시행하여야만 균부균세를 통한 均民平政이 실현될 수 있다는 均民論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28]

반계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정치·경제·군사·교육 등을 전면적으로 개혁한 새로운 국가 구상을 제출하는데, 우선 그는 지주전호제를 해체하여 공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토지개혁안은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통일적 계획적으로 구획 조정하고 이를 노동력과 신분, 사회분업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기분에 따라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사적 대토지소유와 지주제 경영이 부정되고, 농업을 비롯한 상공업의 일정한 발전과 민산의 균등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조세·요역·군역 등 국가 수취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을 군사조식으로 전환하여, 농업과 군역을 일치시키는 兵農一致 제도를 구상하였다.[29]

그의 이러한 국가 구상은 북인의 국가 중심적 사고, 예법 질서를 중시하

28) 최윤오, 「반계 유형원의 정전법과 공전제」, 『역사와 현실』 42, 학국역사연구회, 2001.
29) 김준석,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硏究-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 지식산업사, 2003.

는 시각을 계승하여 변법적 개혁론의 이념적 근거로 활용하는 가운데 삼대의 고제·고법에 근거한 사회변혁을 통해서 지주제와 양반제를 극복하려는 것이었으며 정치제도·정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이에서 李貴(1557～1633)를 거쳐 崔鳴吉(1586～1647)에 의해 제출된 관제변통론을 원용하고, 군사제도 개혁에서는 이귀의 군정변통론, 교육제도에서는 조익·박지계가 제출한 공교육 강화론이 포함되었다. 반계는 이러한 정치·군사·교육제도 개혁론을 공전제를 전제로 하여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반계수록』에서 제시된 국가개혁론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흐름의 학술 자료와 국가개혁론을 종합하여 체계화한 혁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30]

조선후기 실학은 이와 같이 이 시기의 국가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추동하려는 학문적 모색 가운데서 성립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주자학과는 다른 반주자학의 흐름이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계의『반계수록』은 바로 이러한 이시기의 정치적 사상적 모색을 집약한 정론서였으며, 이로써 실학은 새로운 학파로 성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0) 김용흠,「조선후기 정치와 실학」,『다산과 현대』2,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

Ⅲ. 『磻溪隨錄』의 영향과 그 의의

『磻溪隨錄』은 당시 몇몇 인사들에게 읽혀졌으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반계가 별세한 지 몇 년이 흐른 1678년에 절친한 친구였던 裵商琉가 조정에 소개했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남인 집권기였음에도 사정이 그러했다. 성리학에 기반한 사대부 사회를 지향했던 당시에, 그의 구상은 뜻은 좋아도 실용에 맞지 않는 오활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까지 『반계수록』에 관심을 갖거나 칭찬했던 저명한 인물은 꼽자면 영남 남인의 영수 李玄逸, 소론의 영수 尹拯 정도였다.

반계와 『반계수록』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가 저물고 국가 갱신의 방향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영조 대 이후였다. 李瀷은 반계의 학문을 계승해 학파를 일구었고 그 학풍은 丁若鏞으로 이어졌다.

영조 초반 남인 관료를 대표한 吳光運은 나아가 그의 학문이 성리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반계수록』의 서문을 쓰고 행장을 정리하게 된다. 영조 대 중반으로 가면 당파가 달랐던 소론, 노론의 학자와 관료를 비롯해 국왕도 『반계수록』에 주목한다. 1741년 윤증의 제자인 梁得中은 영조에게 『반계수록』을 추천했고, 노론 학자 朴胤源·金用謙 같은 이들도 『반계수록』을 베껴보며 반계를 대표적인 '경제지사'로 칭송했다. 노론이었던 朴趾源이 『許生傳』에서 허생의 입을 빌려 반계를 족히 군량을 조달할 수 있던 인물로 그린 일은 유명하다.

반계가 제시한 여러 개혁책은 영·정조대에 매우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일부 제도에 녹아들었다. 『반계수록』을 실제 개혁에 응용한 대표적 인사는 노론 관료 홍계희였다. 그는 젊은 시절 『반계수록』에 심취해 제도 변통에 뜻을 두게 되었다. 훗날 반계의 제시대로 주현 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토지를 기준으로 양역을 부과하자는 결포를 주장했다. 비록 실현하지 못했으나, 홍계희는 공평과세가 일부 실현된 균역법을 입안하고 실무자로 크게 활약했다.

정조 또한 『반계수록』의 애독자였으며, 특히 반계는 『반계수록』에서 수원부를 북쪽으로 옮기고 성곽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는데, 화성은 그의 예언대로 옛 수원부의 북쪽, 즉 팔달산 동쪽에 건설되었다. 정조는 100년 전에 쓰여진 『반계수록』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31]

앞에서 보듯이 『반계수록』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여러 붕당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익이나 정약용은 반계의 토지개혁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토지개혁을 주장하며 발전시키게 된다.

1. 17～18세기 초 少論·南人系에 끼친 영향

반계의 영향을 받은 대표 남인계 학자로는 李玄逸(1627～1704)과 소론계 학자로는 梁得中(1665～1742), 그리고 『반계수록』의 行狀을 쓰고 반계를 찬양한 吳光運(1689～1745)등이 있게 된다.

南人系 학자인 이현일과 반계는 비록 나이차이가 5년 밖에 나지 않지만 한 번도 상면한 적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반계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생활하였지만 32세 되던 해 부안으로 낙향하였고, 이현일은 반계가 이미 사망한 후인 숙종 3년 처음 유일로 천거되어 관계에 나가면서 入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현일과 반계를 이어준 사람은 반계의 사돈이자 벗으로 金山에 세거하고 있던 裵尙瑜(1610～1686)였다.

배상유는 甲寅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윤휴에게 『반계수록』을 보내어 개혁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배상유는 庚申大黜陟으로 윤휴가 죽임을 당하자 영남 남인의 지도자였던 이현일에게 『반계수록』의 서문을 부탁하고 이를 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현일이 『반계수록』을 처음 접한 것은 반계가 사망하고 난 이후인 숙종 3년～5년 사이였다. 그러나 서문의 작성이 지연되자 배상유는 金泉驛丞을 통하여 당시 이현일의 거소였던, 영해에 다시 『반계수록』13권을 淨書하여 보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반계의 아들인 柳昱가

31) 이경구, 2009, 위의 책 pp.169-173

이현일의 문하에 급문하기도 하였다. 이현일은 배상유를 통해서 반계의 『반계수록』을 접하고 난 뒤 “이고(?~1171)의 『平賦』나 임훈의『本政』과 같은 책이라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며, 그 대체의 규모로 말하더라도 두씨의 『通典』이나 구씨의 『大學衍義補』에 비해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사실 이현일은 젊어서부터 중형 존재 이휘일과 더불어 『洪範衍義』를 편찬하는 등 현실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洪範衍義』는 현종 13년(1672) 이휘일이 사망하면서 그 편찬이 중단되었지만, 『반계수록』을 접하고 이에 자극받아 숙종 14년(1688) 『홍범연의』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현일은 『반계수록』에 대하여 “규모가 원대하고 조리가 분명하여 실정에 어두운 허황된 말이 아니라 모두 실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글이 비록 독자적인 의견을 내어 제도를 창립한 듯이 보이지만 실은 한마디로 고인이 이미 행한 법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로 평가하면서 “누군가 이 책을 가지고 聖上께 말씀드려 한가한 때 보시고 마음에 들게 된다면 공이 당시에 기용되지 못한 것을 선비들이 한탄하지 않을 것이요, 하늘이 공을 세상에 낸 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여 극찬하였다.

그러나 이현일 자신은 經筵에 들어가서도 『반계수록』을 추천한 적이 없었으며 다만 『반계수록』을 소개한 배상유에게만 “經世宰物之論으로 옛 것을 원용하고 지금의 적당한 것을 참작하여 부합되도록 한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三代之志를 만회하도록 한다.”고 평가하는데 그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己巳換局 이후 이현일은 산림으로 다시 출사하여 화폐유통 및 선사법 등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이는 반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32]

少論系 학자인 梁得中은 숙종 때 학생으로 천거를 받아 벼슬을 나아간 이래 영조에게 ‘實事求是’의 정신을 강조한 인물로 유명하다. 백성들의 현실적 삶이 조정의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으나, 당시 경연에서는 아직도 『朱子語類』를 핵심 교재로 강론을 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영조에게 『주자어류』

32) 김형수, 「葛庵 李玄逸의 理學과 현실인식」, 『국학연구』9, 한국국학진흥원, 2006.

대신 반계의 『반계수록』을 힘써 공부할 것을 권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그러한 노력은 영조가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정치를 펼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양득중의 그런 학문적 성격은 스승 윤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33] 德村은 辛酉疏에서 "성상께서 이미 實事求是 넉자로써 壁間에 걸으셨다."하고 있다.

대개 天理와 人事의 得失利害의 歸極點이란 본래 이것은 天의 經法이요 地의 義이니, 변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孔孟으로부터 歷代의 여러 어진 이가 이에서 노력하지 안음이 없었습니다. 隨나라의 王通이 이른바 「밭을 井으로 주지 않고 사람이 마을에 살지 않으면 비록 舜·禹 같은 어진 왕도 능히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至論입니다.

다만 그 制度節文의 자상한 것은 周나라 이후 지금까지 강구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 近世에 湖南儒生 반계란 자가 있어 곧 능히 法制를 강구하여 빛나게 구비하였습니다. 田制로부터 시작하여 說敎·選擧·任官·職官·祿制·兵制에 이르기까지 작고 미미한 것까지 모두 다 말하여 毫髮도 남겨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臣은 일찍이 돌아가신 스승 尹拯의 집에서 이것을 얻어 보았습니다. 臣의 亡師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옛날 聖王의 遺法을 潤色하여 그 본뜻을 읽지 아니하였다. 만일 국가에서 王政을 실행코자 한다면 오직 이것으로 擧措할 뿐이다.」하였습니다.

대개 그 사람됨이 杜門獨學하여 세상의 聞知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잘 몰랐는데 유독 다행히 亡師께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臣이 일찍 그 책을 얻어 혼자 연구해본즉 天理自然한 公이 있고 사람이 일부러 安排한 私가 없으며, 정리되어 條理가 있되 어지럽지 않고 환한 문체가 있되 실증이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 臣이 엎드려 듣건대 그 사람은 이미 죽고 그 子孫이 지금 湖南의 扶安과 京畿의 果川에 있다고 합니다. 伏望컨대 殿下께서 그 邑守臣들에게 特命하셔 子孫들의 집에서 그 책을 바치게 하고 乙覽토록 비치하고 또 儒臣들로 하여금 玉堂에 모이게 하여 지극한 뜻으로 講明하고 中外에 分布하여 차차 施行토록 하시면 다행하기 그지없겠습니다. (同, 又辭疏, 辛酉)

이 글에서 본 것과 같이 스승인 윤증의 영향으로 양득중은 『반계수록』을 중요시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33) 이상성, 「明齋 尹拯과 德村 梁得中의 학문교유고」, 『한국사상 문화』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양득중은 토지제도의 정비, 곧 정전제도를 주장한 점, 반계의 수록을 이해하고 표창한 점, 이와 같은 실학정신은 윤증을 통하여 반계에서 영향 받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34]

2. 18세기 중후반 洛論系·北學派에 끼친 영향

洛論系 학파는 趙聖期(1638～1689)를 시작으로 金昌協(1651～1708), 金昌翕(1653～1722)을 거쳐 李縡(1680～1746)로 발달이 되는데 경세학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와 계승은 김창협·김창흡 단계에서는 미미했다. 그들 형제는 기본적으로 학문성향이 文章家이자 性理學者에 가까웠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세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시키지는 못했다.

김창협이 象數學 연구의 어려움을 김창흡에게 솔직히 토로했다던가.[35]김창흡이 훗날 조성기로부터 訓局軍·御營軍·大同法·田稅法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배워 두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던가,[36] 象數學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金錫文(1658～1735)에게 자네가 배워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말들에서 이러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37]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들만의 책임은 아니었다. 조성기가 經世의 커다란 規模와 틀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였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節目과 度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술을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조성기 자신도 김창흡이 증언했듯이 상수학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38]

---

34) 유명종, 「德村 梁得中의 實學思想-陽明學과 實事求是의 折衷」, 『한국학보』, 일지사, 1977.

35) 金昌協, 『農巖集』卷11, 「答子益,」 "邵子書 惟患不得縫罅耳 一路稍開 則漸有窺尋 穿穴之端 到此正好玩究透撤 而每苦心力易倦 半途廢輟 此可惜耳"(조성산, 「18세기 낙론계의 반계수록인식과 홍계희 경세학의 사상적 기반」,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04. p.4재인용)

36) 金昌翕, 『三淵集』拾遺 卷 31, 「語錄」 "先生曰 每恨拙修齋在時 未能學得 如訓局軍如何 御營軍如何 大同田稅法如何 此類皆當講究 而旣失少時 到今衰老 無由着力."(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4 재인용)

37) 金昌翕, 『三淵集』拾遺 卷 31, 「語錄」 "又謂金錫文曰 君解此以敎我 蓋難求處 不可求曉"(조성산, 위의 논문 p.4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김창흡은 禮樂·律呂·兵刑·官制·食貨 등 名物度數之學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39] 그것은 그야말로 '인식'에만 그쳤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心性論과 文學論에 주로 집중되어 있던 초기 낙론계학 풍이 풀어야 할 학문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낙론계 학맥은 李縡에 의해서 계승되는데 김창협·김창흡과 직접적인 사승관계를 통해 낙론계 학풍을 계승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의 학풍 속에서는 그들과 다소 구분되는 모습들이 보였다. 李縡는 象數·儀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그는 『周易』을 배움에 있어서 程傳과 朱熹의 本義만을 취할 것이며 象數의 말단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金時鐸(1713～1751)은 처음 이재를 만났을 때 『喪禮備要』를 수업 받기 원했으나 四書의 義理講明을 중시하고 儀章·度數를 우선하지 않는 이재의 강학원칙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40]이러한 입장은 그가 下學을 우선하고 학생을 가르칠 때에 항상 『小學』을 먼저 가르쳤다는 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41] 그는 象數·儀章·度數를 우선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학문의 대체와 『小學』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도덕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져 吳瑗(1700～1740)은 『小學』을 모든 공부의 우선으로 두고 있었고,[42] 黃景源(1709～1787)과 李敏坤(1695～1756) 또한 의리학을 묵수하는 경향을 띠었다.[43]

---

38) 金昌翕, 『三淵集』拾遺 卷 31, 「語錄」 "明履日因問皇極經世書中徐花潭所推算處 先生曰 曾見拙修齋欲窮此 便致氣塞胸 常日若有知此者 當尊而師之."(조성산, 위의 논문 p.5 재인용)

39) 유봉학,『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一志社, 1995.

40) 최성환, 「朝鮮後期 李縡의 學問과 寒泉精舍의 門人敎育」, 『歷史敎育』 77, 역사교육연구회, 2001.

41) 이규상, 『18세기 조선인물지: 幷世才彦錄』, 창작과 비평사, 1997.

42) 吳瑗, 『月谷集』卷11, 「與洪君素」, "蓋嘗聞讀書爲學之法 必先讀小學 以收放心而 立大本 而進乎四書 而次及乎三經 以致其窮理致知之功焉 是其次第不可亂也."(조성산, 위의 논문 p.6 재인용)

43) 黃景源은 春秋의 大義를 중요시하여 張廷玉이 지은 『明史』에 弘光 이하 三帝의 帝統이 없는 것을 보고는 『南明書』를 지었고, 또 崇禎 이래로 本朝 여러 신하 가운데 明나라를 위해서 節義를 세운 사람들을 위하여 『明朝陪臣傳』(『江漢集』卷2732)을 짓기도 하였다. 李敏坤 또한 宋時烈 이래의 '直' 사상을 강조하면서 蕩平論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皇極

이러한 학풍 속에서는 邵雍(1011～1077) 象數學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經世學의 발전은 형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경세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낙론계 학풍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반계수록』에 대한 관심은 그중 하나였다. 뒤에서 서술할 洪啓禧는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홍계희(1703～1771) 외에 이재 문하에서 任聖周(1711～1788)는 『반계수록』의 간행에 대해서 기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44] 하지만 그는 『반계수록』의 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田制의 경우 설령 王政을 행하더라도 형세상 부득불 今日의 法制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와 같다면 『반계수록』의 많은 개혁론들도 사실상 공언이 되는 것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45] 이것은 『반계수록』의 개혁론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러한 한계성 지적에는 儀章·象數·度數와 같은 구체적인 경세학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이재 학풍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임성주와 『반계수록』에 대해 논의했던 동생 任靖周(1727～1796)는 반계를 王佐의 재주로, 『반계수록』을 三代 이후 없었던 경세서로 높이 평가하여 임성주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人主가 隆古의 治에 뜻이 있다면 이 책을 버리고는 안 된다며 『반계수록』을 최고의 경세서로 극찬하고 세자 시절을 正祖에게 이 책의 一覽을 권하였다.[46] 이재 이후 낙론계 학풍은 金元行

衍義(『林隱遺編』卷16)라는 글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이민곤에 대해서는 김충렬, 『林隱遺編』解題(보경문화사, 1983) 참조.

44) 任聖周, 『鹿門集』卷10, 「答舍弟穉公」 庚寅 正月, "磻溪書 刊行可喜."(조성산, 위의 논문 p.7 재인용)

45) 任聖周, 『鹿門集』卷10, 「答舍弟穉公」 癸巳 九月, "田制乃是隨錄中第一義大頭腦 而此一著終有信不及 … 設令眞箇行王政 勢不得不就今日法制中推移撙節磨鍊出來耳 如此則隨錄一書 亦將不免爲空言 還堪一笑."(조성산, 위의 논문 p.7 재인용)

46) 任靖周, 『雲湖集』卷3, 雜著 「宿預錄」上, "扶安處士 磻溪王佐才也 其所著隨錄一書 包大小兼體用 天德之粹然者自完 於王道燦然之中 非可以一部經濟書處之者也 用一分收一分 功行二分 得二分效 臣謂三代後殆無此文字 盖自孔孟至於濂洛諸賢 非無格言至論 而若其損益得宜 巨細無遺 綱擧目張 著爲成書 按而行之可以陶鑄三代 則惟此書爲然 人主無意於隆古之治則已 無已則捨此書莫可 三代以來 良法美政 具在一部中 低下若於靜中一賢而細玩 則以睿學之卓然 必有犁然 會怡然喜而知臣言之非過也 吾東方萬世太平 未必不基於此也."(조성산, 위의 논문 p.7 재인용)

(1702～1772)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그의 門下에서는 상수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인물들이 많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첫째, 김원행이 상수학에 호의적이었던 김창협·김창흡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학문적 경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47]

둘째, 庚申處分(1740)과 辛酉大訓(1741) 이후 老論 義理가 관철되어가고 淸朝의 學術과 西學이 전래되면서 점차 신임의리와 관련한 의리론 일변도의 학풍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원행 문하의 黃胤錫(1729～1791)·洪大容(1731～1783)·金履安(1722～1791)·鄭喆祚(1730～?) 등은 상수학과 서학 연구를 기반으로 天文·曆法·數學 등 經世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황윤석은 상수학에 조예가 깊어, 理藪新編 전 23권을 통해서 그의 상수학 연구를 정리했다.

홍대용은 曆算儀象을 논한 籌解需用을 통해 그의 수학적 자질을 보여주었고 상수학과 서학 연구를 토대로 서양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그는 渾天儀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황윤석과 易範象數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48] 김원행의 아들 김이안(1722～1791) 또한 天文 曆法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김이안은 治國의 중요한 기구로 여겨지던 渾天儀 제작에 관심이 많아 자신이 어렸을 때 書經 虞書 璣衡의 글을 읽고 좋아하여 대나무로 이것을 직접 만들어 보았고, 이후 洪大容과 이것에 대해 변론하기도 하였음을 술회하였다. 渾天儀에 대한 깊은 관심은 낙론계 학풍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17세기 李端錫(1625～1688)에게서 이미 보이고 있었다.[49]

한편, 정철조(1730～1781)는 天文 曆算에 매우 밝았다고 하며, 정인보

---

47) 조성산, 「17세기 후반 18세기 초 김창협・김창흡의 학풍과 현실관 」, 『역사와 현실』 52, 한국역사연구회. 2004.

48) 黃胤錫, 『頤齋亂藁』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9) 金昌翕, 『三淵集』拾遺 卷25, 「靜觀齋先生言行錄」, “先生帝置渾天儀于座側 玩測之餘 喜與人討論 不擇鈍敏而竭兩端焉”(조성산, 위의 논문 p.8 재인용)

(1893～1950)에 의하면 황윤석의 『理藪新編』은 정철조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50] 이러한 변화된 학풍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朴胤源(1734～1799)의 『반계수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해할 수 있다.

或者가 '반계의 『반계수록』을 지금도 행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박윤원은 행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반계수록』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백 수년이니 그 사이에 時弊와 民瘼은 또한 반계 때와 모두 같지는 않겠지만 시대를 참작하여 변통한다면 그 대강은 『반계수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다.[51] 박윤원이 이렇게 『반계수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마도 金用謙(1702～1789)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2] 박윤원의 외조모가 김용겸과 사촌남매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김용겸과 평소 긴밀한 교유가 있었다.[53] 김용겸은 평소 經濟之學에 관심을 가져 『반계수록』을 손수 베껴서 읽고는 하였다고 한다.[54] 이러한 김용겸의 생각이 박윤원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金用謙과 교유했던 인물들 중에는 『반계수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李德懋(1741～1793)는 『반계수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李書九(1754～1825)에게 주는 편지에서 자신이 전부터 우리나라에 세 가지 좋은 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聖學輯要』, 『磻溪隨錄』, 『東醫寶鑑』이라고 하였다.[55] 그러면서 이덕무는 이서구에게 詞章에만 전심하지 말고 經濟之學에도 관심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적극적으로

---

50) 鄭寅普, 『薝園鄭寅普全集』 5(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薝園文錄」 四 鄭石癡歌, "頤齋所著 理數新編曆算之說 多傳自石癡"(오수경, 『18세기 서울 文人知識層의 性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41쪽 재인용)

51) 朴胤源, 『近齋集』卷24, 雜著 「治道大綱」, "或曰柳『磻溪隨錄』 今可行乎 曰可行 自隨錄之作 至今 百數十年 則其間時弊民瘼 亦必有與柳公時不盡同者 則似當斟酌 變通 而大綱則不出乎此錄." (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9 재인용)

52) 오수경, 「嘐嘐齋 金用謙 硏究」, 『漢文學報』2, 1990.

53) 오수경, 1990, 위의 논문.

54) 朴胤源 『近齋集』 卷31, 「嘐嘐齋金公遺事」, "又留心經濟 愛柳磻溪隨錄 手寫以觀."(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9 재인용)

55) 李德懋, 『雅亭遺稿』 卷6, 「與李洛瑞書」, "不佞嘗以爲 朝鮮有三部好書 曰聖學輯要 曰磻溪隨錄 曰東醫寶鑑 一則道學 一則經濟 一則活人之方 皆儒者事也."(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11 재인용)

반계의 주장과 언설들을 수용하여, 과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반계수록』에 실려 있는 과거의 폐해를 인용하였고[56] 사대부의 생활지침을 기록한 士小節 이라는 글에서도 반계의 말을 인용하여 적고 있었다.[57]

이 밖에도 經濟之學에 뜻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반계수록』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閔彛顯(1750～1793)은 『반계수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여흥 민씨 閔遇洙(1694～1756)의 손자로서 金亮行의 사위였다. 그는 經濟之學에 마음을 두고서 평소에 반계와 조성기의 글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58] 일찍이 그의 高祖였던 閔維重(1630～1687)이 반계의 從叔이었으며 그를 行誼로서 조정에 천거하고자 했다는 것과[59] 여흥 민씨 가문이 경세관료로서 명성이 높았던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민이현의『반계수록』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낙론계 학맥 가운데 반계와 『반계수록』에 관심 갖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반계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보였던 사람을 홍계희였다. 특히 그는 낙론계 인물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반계수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홍계희는 李縡의 문도로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었다. 홍계희의 어머니는 李翔(1620～1690)의 여식으로서 이재의 再從姑母였다. 이러한 관계는 그가 이재의문하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계희는

---

56) 李德懋, 『靑莊館全書』卷58, 「盎葉記」 五, “柳處士馨遠磻溪雜識曰 鄭伯虞言 科擧取人之法 作於隋煬 楊廣之罪 固不可勝誅 而此爲其罪之大者 何也 弑逆之罪 罪當其身 而足爲千萬世之戒 使天下萬世 如長夜者 科擧之害也.”(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11재인용)

57) 李德懋, 『靑莊館全書』卷28, 「士小節 」第二 「士典」 二, “柳處士馨遠曰 志於道而未 能立者 志爲氣惰也 朝興夜寐 未能也 正衣冠 尊瞻視 未能也 事親之際 和顔色 未能也 居室之間 敬相對 未能也.”

58) 閔彛顯, 『觀生窩遺稿』卷2, 「附錄遺事」, “公留心經濟之學 嘗曰講說而不能體貼身心徒說 爲學而不能兼治經濟非學 平居喜觀柳磻溪趙拙修文字”(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11 재인용)

59) 柳馨遠, 『磻溪雜藁』(驪江出版社, 1989) 「附錄」 行狀(吳光運撰), 239쪽, “國舅閔維重兄弟 於公爲從叔 欲薦行誼 公正色曰 叔非知我者也 遂不果薦” ; 민유중 형제의 어머니는 반계의 할머니와 함께 이광임의 딸로서 친자매 사이여서 민유중 형제에게 반계는 이질에 해당하였다. (정만조, 「擔窩 洪啓禧의 家系분석」,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212～213쪽)

영조의 蕩平 정책에 찬동하고 均役法을 주장해서 의리론을 중시하던 이재와 그의 문도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60] 홍계희는 英祖에게 『반계수록』을 간행할 것을 元景夏(1698～1761)와 함께 청하였고,[61] 반계의 傳과 墓碑의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는 영조에게 올리는 글에서 자신이 젊을 적 『반계수록』을 보고서 매우 좋아하여 탐독하였고 몇 년 후에 그 대략을 알게 되었으며, 증손 柳發(1683～1775)로부터 반계의 遺文을 모두 얻어 읽고서 비로소 그가 天下의 士임을 알았다고 회고하였다.[62]

그는 의리론과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이재 문하에서 이례적으로 경세학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영조대 蕩平政治·均役·濬川 등 수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가 편찬한 책들에서 그의 經世致用的 학문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는 『三韻聲彙』·『均役事實』·『濬川事實』·『國朝喪禮補編』·『國朝樂章』·『明史綱目』·『經世指掌』·『文章正宗』·『朱文公先生行宮便殿奏箚』·『文山先生祥傳 』등의 책들을 편찬하는데 참여했다. 여기에는 음운학·부세제도·건축·궁중예제·역사·상수학·음악·문장·경세론 등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분야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이처럼 홍계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경세학 연구의 저변에는 申欽(1566～1628)-申翊聖(1588～1644)-申最(1619～1658)-金錫胄(1634～1684)·趙顯期(1634～1684)-趙聖期-金昌翕-金錫文으로 이어져오던 낙론계의 학문 전통과 함께 반계의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63]

그가 젊은 시절 『반계수록』에 심취했고 그의 遺文들까지 모두 얻어 읽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홍계희가 『반계수록』과 경세학의

---

60) 黃胤錫, 『頤齋亂藁』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卷19, 辛卯(1771) 10월 14일(辛巳) 13쪽

61) 柳馨遠, 『磻溪雜藁』 附錄 「磻溪先生年譜」(柳發 草綠·安鼎福 修輯·李家源 謹校), “二十二年 丙寅 命儒臣洪啓禧 撰進先生本傳 洪登對時 奏先生學問之博 及所著隨錄 上俯詢先生事實 因 命撰傳以進 時洪以參贊官入侍言及先生 知事元景夏 曰柳某所著隨錄 乃經世之大務 參贊官 篤好之 嘗謂皆可用也 洪曰其書止大廣博 必有所益 臣謂分付兩南道臣 刊行可也 上曰其書 自玉堂夏入之 元曰參贊官 多讀古書 但持論甚偏 柳某與今人色目不同 而參贊官 以公心尊慕其人 篤好隨錄 豈不好哉 上遂有是命”(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14재인용)

62) 柳馨遠, 『磻溪雜藁』附錄 傳(洪啓禧 撰) 269쪽

63) 정만조, 「澹窩 洪啓禧의 家系 분석」,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와 반계가 가졌던 사상의 공유점과 그 영향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홍계희는 영조에게 올리는 글에서 『반계수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었다. 자신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번번이 『반계수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혹자는 그 저술이 커서 해당됨이 없고 迂闊하여 切實하지 않으니 無用의 책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또 혹자는 治國의 道는 마땅히 大體를 논해야 하는데 어찌 반드시 瑣細한 節目에 힘쓰는가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64] 이와 같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서 洪啓禧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마지막 경우였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길게 반론을 폈다.

마땅히 大體를 논해야 한다는 說에 이르러서는 그럴 듯하지만 臣이 근심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왜이겠습니까! 唐虞三代의 정치를 하는 기구에는 반드시 상세한 節目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周나라 말에 諸侯들이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害가 될가 미워하여 제거하였으니 先王의 典籍은 蕩然히 남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정치를 하는 大體는 다행히 孔孟程朱諸聖賢들에 의해 남김 없이 발휘되었지만 節目에 있어서는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治道를 말하는 자는 그 大體를 거론해서는 반드시 唐虞三代를 칭하나 그 節目과 施行하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秦漢 이래의 俗規들이었습니다. 이에 天下의 사람들은 여기에 편안하여 다시 깊이 經界·貢擧·學校·軍制와 같은 것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世上의 儒者들로 하여금 大體를 논하게 하면 환하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지만 그 일을 거행하게 하면 처음부터 茫然해 하지 않는 이가 적어서 마침내 행하는 것들은 이제까지 이어져 오는 잘못된 例規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략 大體는 알지만 條理에 밝지 않은 과실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고 말면 先王의 道는 끝내 행할 수 있는 날이 없게 될 것이며 萬世는 계속 어두운 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계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책을 지은 이유였습니다.[65]

---

64) 柳馨遠, 『磻溪雜藁』附錄 傳(洪啓禧 撰) 270쪽, "對人輒擧 似則有信者 有不信者 或謂其所著述大而無當 迂而不切 是不過爲無用之書也 或謂治國之道 當論大體 何必屑屑於瑣細節目之間".(조성산, 2004, 위의 논문 p.15재인용)

65) 柳馨遠, 『磻溪雜藁』 附錄 傳(洪啓禧 撰).

홍계희는 唐虞三代에는 정치를 하는 기구에 상세한 節目들이 있었는데 周末에 諸侯들이 그것이 자신들에게 해될까 우려하여 제거하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행히 그 爲治의 大體는 孔孟程朱諸賢들이 계승하였지만 상세한 節目에 있어서는 미처 복원하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후세 儒者들은 大體를 거론할 때는 唐虞三代를 논하지만 節目과 施行에 있어서는 秦漢 이래의 俗規들뿐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천하 사람들이 편안히 여겨 다시 經界·貢擧·學校·軍制와 같은 것을 연구하지 않으니 그 대체를 거론하면 밝게 아름다운 말들을 나열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잘못된 規例를 답습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先王의 政治를 회복할 날이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반계가 『반계수록』을 편찬하였던 것임을 영조에게 상세히 말하였다.

『반계수록』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학문적 추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洪啓禧와 金元行 문인들의 『반계수록』에 대한 관심은 經世學이 부족한 낙론계 학풍을 보완하려는 노력이었다. 道學에는 李珥의 『聖學輯要』를, 經濟에는 반계의 『반계수록』을 대표적인 저서로 정립하고자 했던 李德懋의 시도는 이를 대표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 속에 18세기말에 이르면 『반계수록』은 經濟之學에 관심 갖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저서로 자리 매김 하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66]

반계의 사상과 개혁내용은 낙론계를 거쳐 북학파에도 영향을 주게 된는데, 北學派의 선구자인 洪大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서 중에서 『聖學輯要』와 『반계수록』을 經世有用의 學으로 삼아 귀중하게 여겼다고 한다.[67]

홍대용은 어려서 김원행에게 수학하고 성장하는데, 김원행은 낙론계학파로 반계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살펴볼 수 있다. 또 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 박제가 등과 깊은 친교를 맺으면서 실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66) 조성산, 「18세기 洛論系의 『磻溪隨錄』인식과 洪啓禧 經世學의 사상적 기반」,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04.

67) 洪大容, 『湛軒集』附錄 「從兄湛軒先生遺事」(從父弟 大應 撰), "東人著書中 以聖學輯要반계隧錄爲經世有用之學"

1765년에는 숙부 洪檍(1722～1809)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갈 때 군관으로 수행하여, 北京에 다녀오게 되는데 북경 방문은 그에게 학문세계를 열어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북경에서 보고 들은 것이 모태가 도어 북학사상의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홍대용의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均田制, 府兵制를 토대로 하는 경제정책, 과거제를 폐지하여 貢擧制에 의한 인재 등용, 신분의 차별 철폐와 교육기회의 균등부여 등 혁신적인 개혁사상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개혁내용은 반계의 『반계수록』의 그것과 겹치고 있다. 이것은 반계보다 늦게 태어난 홍대용이 반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그 것은 스승인 김원행의 영향과 박지원과의 교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표 북학파인 朴趾源(1737～1805)은 許生傳을 통해 반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허생의 입을 통해 조성기는 敵國에 사신 보낼 만한 인물이며 반계는 軍糧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는 인물로 묘사하는데, '어허, 예로부터 어둠에 잠긴 자가 얼마나 많았던고. 저 趙聖期 拙修齋 는 敵國의 使臣으로 보낼 만하건마는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磻溪居士)은 넉넉히 군량을 나를 만하였으나 저 海曲에서 바장이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고 보니 지금의 나랏일을 보살피는 자들을 가히 알 것이 아니겠는가. 나로 말한다면 장사를 잘하는 자인만큼 내 돈이 넉넉히 아홉 나라 임금의 머리를 살 수 없음은 아니로되 아까 저 바닷 속에 그걸 던지고 온 것은 아무런 쓸 곳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네.'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68]

박지원이 대표적인 재야의 경세가로서 이 두 사람을 지목한 것은 이들이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經濟之學으로 명망이 높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한다. 『過庭錄』에도 박지원이 "매양 柳磻溪의 평생 경륜은 大儒라 할 만하다."고 칭예했음이 기록되어 있다.[69]

---

68) 朴趾源, 「許生傳」, 『燕巖集』14卷, "古來沉冥者何限 趙聖期拙修齋可使敵國 而老死布褐 柳馨遠磻溪居士 足繼軍食 而逍遙海曲 今之謀國政者 可知已 吾善賈者也 其銀足以市九王之頭 然投之海中而來者 無所可用故耳"

69) 박종채,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3. 磻溪 이후 土地改革의 展開와 發展

반계의 토지개혁은 후세의 실학파의 거두인 이익에게 영향을 주고 정약용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조선후기의 토지개혁을 발전시킨다.

이익의 제자인 安鼎福(1712～1791)은 비록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반계의 『반계수록』에는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데, 그는 이익의 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영향을 준 순서를 보면 반계가 이익보다 먼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안정복이 청년시절에 닦은 독자적인 학문과 사상은 먼저 반계의 영향을 입은 다음, 이어 이익의 문하에 들어가 새롭게 다져졌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안정복이 반계를 어렴풋이나마 접하게 된 것은 15세 무렵 전라도 茂朱에서 살 때 조부인 安瑞羽(1664～1735)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는데 안서우는 일찍이 반계의 저서를 접하였고 그의 학문 또한 매우 현실적이었다. 따라서 안정복의 집안에서는 반계의 실학적 학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안정복이 본격적으로 반계의 저서를 접한 것은 33세 때 당시 반계의 종손이였던 柳發이 둘째아들의 상을 당하게 되고, 조문 차 유발의 집에 방문하면서 둘의 교유가 생겨나게 된다. 평소 반계의 학문을 흠모하는 안정복의 생각을 잘 알고 있던 유발은 그에게 『반계수록』을 빌려주었고 이에 안정복은 반계의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얻었으며 그 후에도 유발을 자주 만나면서 반계의 다른 저서도 열람하였다. 그는 반계의 저서들 중 특히 관심을 둔 것은 『반계수록』과 『동국여지지』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에 자신의 대표작인 『東史綱目』을 비롯하여 『임관정요』등의 저서들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반계의 저서는 안정복의 實學思想과 歷史學에 영향을 주면서 독자적인 학문으로 일관해온 안정복의 학문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반계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학문과 개혁사상을 극찬했던 이익을 통해서도 안정복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반계의 학문과 사상이 안정복에게 끼친 영향은 문헌 기록으로 전해져 오는 그 이상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70]

반면에 이익과 정약용은 반계의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각자 자신들의 사상에 맞는 토지개혁론을 제시하게 된다.

이익은 토지겸병이 가진 폐해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토지란 본래 '國家의 所有'이므로 사주가 함부로 전유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를 公·私로 구분하여 "王者 公"이라 하였다. 사의 반대가 곧 공이므로, 그 제도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익은 유형원과는 달리 限田制 改革論을 구상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개별 농가에서 보유하지 못하게 하며, 그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는 공권의 힘으로 강력히 제어해야 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는 현재의 지주제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토지를 구입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 같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은 전 국토를 국유화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급작스럽게, 과격하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 부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그럴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71]

정약용은 반계의 均田制와 이익의 限田制는 인구변동과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실시하기가 힘들므로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으며 정약용은 선배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의 가장 큰 결함은 토지의 균등한 소유에만 유의한 나머지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토지를 분배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게 허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는 놀고 먹으라고 가르친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閭田制를 실시하는 것만이 井田論, 均田論, 限田論의 결함을 없이 하면서 당시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

70) 姜世求,「柳馨遠·李瀷과 安鼎福의 學問的 傳承關係」,『실학사상연구』, 역사실학회, 1995.
71) 정호훈,「實學者의 政治理念과 政治運營論」,『韓國實學思想硏究』2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주적 토지소유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적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2)]

정약용은 정전제와 여전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의 정전제에 나타난 토지수용과 토지분급은 우선 국유지나 신전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점진적인 방법이였다. 그리고 토지구획도 이 같은 국유지만의 설치로 제한되고 지주제는 그대로 용인되는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여전론은 토지국유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농인경제 안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개혁론이었다. 여전론의 특징은 농업생산을 閭(촌락) 단위로 집단화하여 集團農場이나 共同農場을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토지몰수와 분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주층의 토지를 국가가 무상몰수하고 그에 대해 1/10세를 행하는 방식으로 농민의 均産을 생각하고 있었고 나아가 국가의 부강을 꾀했다. 여전 역시 토지국유화를 전제로 왕토 아래 공동농장의 형태로 재분배되는 것이었다.

土地國有化를 전제로 한 정전제 방식의 토지구획과 그것을 통한 토지분급 방식은 이 시기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러한 바탕 위에 부국강병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 구성원의 職分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또한 국가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동능력에 따른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문제가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토지구획과 그에 따른 분배가 행해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균전제나 한전제가 모두 토지를 단위로 하지 않고 民戶를 단위로 均産을 지향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약용을 통해 종합된 토지개혁론은 단순히 토지개혁론 차원에만 머무는

---

72) 홍덕기, 「茶山 丁若鏞의 土地改革思想 硏究-閭田論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것이 아니라 상품생산을 전제로 한 토지분배와 노동력 안배, 그리고 전업농의 육성까지 고려된 형태로까지 발전되고 있었다. 그것은 恒産田을 통해 농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恒産田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활동하던 19세기 전반기에 이미 농촌경제는 파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각지에서 농민항쟁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의 농민 보호 방략은 농업경영을 집단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농촌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계 이후 정약용에 이르는 토지개혁론의 성격은 조선후기의 극심한 사회모순과 그에 대한 대응논리로 마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비록 그것이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1862년 농민항쟁과 1894년 농민 전쟁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73] 조선후기의 토지개혁은 반계로부터 시작해서 정약용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3) 최윤오, 「朝鮮後期 所有論과 土地論」, 『韓國實學思想硏究』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Ⅳ. 맺음말

17세기 사회의 혼란으로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개혁안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 중 반계는 자신의 『磻溪隨錄』을 통하여 당시에 맞는 모든 분야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던 인물로 실학의 선구자로 불리게 된다. 그는 고대 삼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며 變法觀과 實理論이 잘 들어나 있는 개혁내용을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반계는 『반계수록』에서 三代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과도 맞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반계의 개혁에 기본 사상이 되는 實理論은 實理의 理와 관련해서 道와 誠을 통일적으로 이해하였으며, 理氣문제에 대한 종래 유자들의 번쇄한 추론·사변의 태도에 반대하였다. 또한 실리론에 입각한 人性觀을 발전시킴으로써 '性卽理說'을 극복한 관념 속의 도덕·윤리적인 인간 대신에 살아있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긍정하고 이를 통해서 이상과 현실, 규범과 정서의 조화를 모색하는 人間像을 설정하게 되었다.

결국 주자학의 格物致知가 인간과 사물을 규범적 가치, 法制=道理로서 설명하기 위한 사변 · 관념의 방법이었음에 대해서 반계는 實事=현상세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여 이를 실용에 적용하려는 '實事求是'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마침내 理氣二元論을 극복하여 理一元의 實理論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실리론은 理氣論과 經世論을 이론과 실천의 관계, 사물과 법칙의 관계로 매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主靜制動'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以人爲本'의 改良 改善論을 극복하고 '以地爲本'의 變法 改革論의 철학적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계는 '실리론'을 기초로 국가개혁안을 제시한 『반계수록』을 저술하고 그 중 토지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안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제도사에 대한 經世學 연구에 기초해볼 때 토지제도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토지는 농업이 지배적 생산

방식인 사회에서는 수입과 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였으며, 토지제도는 토지의 부당한 분배뿐만 아니라 전세·요역·군역의 불공평한 부담도 교정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 소유의 문제와 해결책으로 周나라의 井田制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선 토지의 사유제를 폐지하여야만 토지제가 바로 된다고 하였다. 반계는 주나라의 井田制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結付法을 폐지하고 頃畝法으로 바꾸어서 시행한다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개혁론들은 그가 정치계에 입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하였었고, 반계 사후에 『반계수록』이 후학들에 의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그의 개혁론, 특히 토지개혁론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으며 당시의 학자들과 후세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반계와 특별한 교유는 없었지만 『반계수록』을 높게 평가하였던 남인계 이현일과 소론계 양득중은 반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특히 양득중은 스승인 윤증의 영향으로 『반계수록』을 접하게 되고 영조에게 『朱子語類』 대신 『반계수록』을 힘써 공부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반계수록』은 당시의 洛論系 학파의 經世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홍계희는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영조에게 『반계수록』을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고, 반계의 종손이였던 유발에게 반계의 遺文들까지 얻어 읽었던 인물이다. 홍계희는 다양한 학문과 경세학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낙론계학파의 영향 뿐 아니라 반계의 저서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 받았을 것이다.

北學派의 박지원과 홍대용은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들 또한 반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許生傳』에서 반계를 언급하여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안정복은 이익의 제자이지만 이익의 영향을 받기 전에 어려서부터 집안의 영향으로 인하여 반계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저서를 쓰는데 반계의 저서 특

히 『磻溪隨錄』과 『東國輿地志』를 많이 참고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반계의 저서는 안정복의 實學思想과 歷史學에 영향을 주면서 독자적인 학문으로 일관해온 안정복의 학문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익과 정약용은 반계와 마찬가지로 토지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내용을 보고 있다. 이익은 국가의 토지 겸병의 폐단을 없애야 하며, 한편으로 유형원과는 달리 限田制 改革論을 구상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개별 농가에서 보유하지 못하게 하며, 그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는 공권의 힘으로 강력히 제어해야 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는 현재의 지주제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토지를 구입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 같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은 전 국토를 국유화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급작스럽게, 과격하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 부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그럴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정약용은 반계의 均田制와 이익의 限田制는 인구변동과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실시하기가 힘들므로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전제와 여전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의 정전제에 나타난 토지수용과 토지분급은 우선 국유지나 신전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점진적인 방법이였다. 그리고 토지구획도 이 같은 국유지만의 설치로 제한되고 지주제는 그대로 용인되는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여전론은 토지국유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농인경제 안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개혁론이었다. 여전론의 특징은 농업생산을 閭(촌락) 단위로 집단화하여 集團農場이나 共同農場을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은 반계를 거쳐 이익과 정약용에 이르러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계 이후 정약용에 이르는 토지개혁론의 성격은 조선후기의 극심한 사회

모순과 그에 대한 대응논리로 마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비록 그것이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1862년 농민항쟁과 1894년 농민 전쟁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반계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저술하여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평가되어지며, 비록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실리론'과 개혁의 내용, 특히 토지개혁론은 후대의 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史料

朴趾源,『許生傳』
柳馨遠,『磻溪隨錄』

2. 參考論著

김준석,『조선전기 정치사상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3.
이경구,『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 역사, 2009.
정구복,『磻溪隨錄』해제, 경인문화사, 1974.
정호훈,『朝鮮後期 政治思想 硏究』, 혜안, 2004.
제임스 B. 팔레, (김범역)『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산처럼,1996.

3. 論 文

강세구,「柳馨遠·李瀷과 安鼎福의 學問的 傳承關係」,『실학사상연구』5, 역사실학회, 1995.
김선경,「반계 유형원의 이상국가 기획론」,『韓國史學報』9, 고려사학회, 2000.
김용섭,「朝鮮後期 土地改革論의 推移」,『동방학지』6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9.
김용흠,「조선후기 정치와 실학」,『다산과 현대』2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

김준석, 「柳馨遠의 變法觀과 實理論」, 『동방학지』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2.

김태영, 「조선 성리학과 실학의 분기」, 『실학의 국가개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김형수, 「葛庵 李玄逸의 理學과 현실인식」, 『국학연구』9, 한국국학진흥원, 2006.

신병주, 「17세기 중, 후반 근기 남인 학자의 학풍」, 『한국문화』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안재순,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 『우리의 사상을 찾아서』14, 사회 과학원, 1997.

유명종, 「德村 梁得中의 實學思想-陽明學과 實事求是의 折衷」, 『한국학보』3, 일지사, 1977.

윤대식, 「유형원의 개혁론: 진보인가? 복고인가?」, 『東西硏究』18,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6.

이상성, 「明齋 尹拯과 德村 梁得中의 學文交遊考」, 『한국사상과 문화』4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이우성, 「초기실학과 성리학의 관계-반계 유형원의 경우」, 『동방학지』5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정구복, 「磻溪 柳馨遠」, 『實學의 古典』4, 창작과 비평사, 1968.

정만조, 「澹窩 洪啓禧의 家系 분석」,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정일균, 「조선후기 유교사상계의 동향: 주자학과 그 대항 담론」, 『다산과 현대』2,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

정호훈, 「한국 근·현대 실학 연구의 추이와 그 문제의식」, 『다산과 현대』2호,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

_____, 「실학자의 정치이념과 정치운영론」, 『한국실학사상연구』2, 연세대학교 국학원구원, 2006.

조성산, 「17세기 후반 18세기 초 김창협 · 김창흡의 학풍과 현실관 」, 『역사와 현실』52 ,한국역사연구회, 2004.

_____, 「18세기 洛論系의 『磻溪隨錄』인식과 洪啓禧 經世學의 사상적 기반」, 『조선시대사학보』30, 조선시대사학회, 2004.

조성을, 「朝鮮後期 實學의 理想國家와 政治體制論」, 『한국실학사상연구』2,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06.

천관우, 「磻溪 柳馨遠 硏究 上」, 『역사학보』 2, 역사학회, 1952.

최성환, 「朝鮮後期 李縡의 學問과 寒泉精舍의 門人敎育」, 『歷史敎育』77, 역사교육 연구회, 2001.

최윤오, 「반계 유형원의 정전법과 공전제」, 『역사와 현실』42, 한국역사연구회, 2001.

_____, 「조선후기 소유론과 토지론」, 『한국실학사상연구』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최창집, 「磻溪 柳馨遠의 행정철학」, 『韓國行政學報』33, 한국행정학회, 1999.

홍덕기,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 연구-여전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